



경력

2015.03 ~ 2016.01 팀아이런(농구교실)
2017.07 ~ 2017.09 능동수영장
2017.12 ~ 2018.02 하이원스키장
2020.11 ~ 2021.04 한국체대 스포츠아카데미
2021.07 ~ 2021.09 제주해변 인명구조
2021.09 ~ 2021.12 유포리아(유아체육)
2021.10 ~ 2021.11 코오롱 스포츠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라이프가드 적십자사
생활체육지도사(농구) 2급
생활체육지도사(보디빌딩)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일반조종 1급

“신체는 앎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 그리고 앎을 통한 시도에 의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킨다.” 유생열 교수님, 박정근 교수님과 함께 영어프리토킹 수업을 수강한지 어언 일 년이 지났습니다. 첫 수업 때 ‘My name is Junhyeok Ko’라는 첫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간단한 주문, 질문 등 어느정도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외에도 수업 관련 주제가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다양했기 때문에 해당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인생 선배이자 한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치신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으로 인한 불참 이외에 모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단지 수업에서 빠지지 않은 것 뿐인데 교수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고 그 덕에 저도 덩달아 영어 공부에 힘을 가할 수 있었고 나름 꾸준함을 통한 발전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앎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신체가 앎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처럼 앎도 신체를 통해 들어오고 꾸준한 몸의 노력이 앎을 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꾸준함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꾸준히 한 행위는 영어수업 참석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기 쓰기도 하루씩 빠지고, 매일 운동도 가끔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수업을 통해 다른 어떤 것 보다 나름 큰 발전을 이룩했고 그게 꾸준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함을 영어 외에 다른 과목이나 운동, 일기, 생활에 적용하여 발전의 범위를 넓혀 자기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제 개인의 성찰인 것 같아 부끄럼을 느낍니다. 제게 이런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KCDC협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제 입이 열리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신 유생열, 박정근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에도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영어는 물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니체, 정동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20, 128p